

즐거움과 고통이 어우러진 월령가

— 《宋詩選註》의 평을 통한 范成大 <四時田園雜興> 분석

盧 垠 靜*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사시전원잡흥>의 유형
 - (1) 농가월령
 - (2) 전원의 즐거움
 - (3) 전원의 고통
3. 전통 전원시의 초월
 - (1) 주관과 객관의 통합 - 실천적 전원
 - (2) 소재의 다양화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淳熙 10년(1183) 여름, 58세의 범성대는 建康府 知府를 사직하고 고향에 있는 자신의 별장 石湖¹⁾로 돌아갔다.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은 오랜 관직생활에 지친 그의 영혼을 위로해주며 새로운 창작의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의 대표작인 <사시전원잡흥> 60수²⁾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 誠信女子大學校 中國語文文化學科 講師(r-yinjing@hanmail.net)

1) 범성대는 乾道 7년(1170) 8월에 集英殿修撰 및 靜江府의 知府, 廣西經略安撫使에 제수되었는데, 임지로 가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吳縣에서 서남쪽으로 12리 떨어진 곳에 별장을 짓고 '石湖'라고 이름 지었다. 自號 또한 별장의 이름에서 따 石湖居士라고 하였다. 淳熙 8년(1181) 孝宗은 범성대에게 '石湖' 두 글자가 적힌 흰 비단을 하사하였고, 범성대는 감격하여 <御書石湖二大字跋>을 짓고 石湖의 바위에 어필을 새겨 넣었다.

전원시인으로 분류되는 범성대의 대표작인 <사시전원잡흥>은 많은 평론가들에 의해 중국 고대 전원시의 집대성으로 평가받아왔다.³⁾ 또 강남 水鄉 농민들의 노동현장과 일상생활 또 그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즐거움과 고통 등을 묘사하여 이전의 전원시와는 남다른 독특한 풍격을 형성했다고도 평가받았으며,⁴⁾ 도연명에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전원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도 받았다.⁵⁾ 특히 錢鍾書는 범성대의 <사시전원잡흥>을 그의 작품 중 가장 널리 전승된 작품이자 가장 영향력이 큰 작품일 뿐만 아니라 중국 고대 전원시의 집대성이라고 하며, 현실을 벗어난 전원시에 흠 내음과 피땀을 새겨 넣었다고 평가하였다.⁶⁾

본고에서는 《송시전주》에서 전종서가 범성대의 <사시전원잡흥>을 평하면서 전원시의 원형을 《시경》의 <칠월>과 도연명의 <懷古田舍>·원진의 <田家詞> 등으로 분류한 것을 근거로, 범성대의 <사시전원잡흥>을 농가월령가와 전원의 즐거움·전원의 고통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중국 고대 전원시의 집대성이라는 평가의 타당성 여부를 증명하고자 한다. 전종서가 도연명보다도 높게 평가한 범성대가⁷⁾ <사시전원잡흥>을 통해 이전 전원시의 전통을 어떻게 접목시켰고,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또 이전의 전원시와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작품을 통해 살펴보겠다.

2) <사시전원잡흥> 60수는 淳熙 13년(1186) 그의 나이 61세에 완성하였다.

3) 許總, 《宋詩史》(重慶出版社, 1992), 692-693쪽 참조.

房開江, 《宋詩》(上海古籍出版社, 1992), 98-101쪽 참조.

趙仁珪, 《宋詩縱橫》(中華書局, 1994), 251-252쪽 참조.

4) 程千帆·吳新雷, 《兩宋文學史》(上海古籍出版社, 1991), 345쪽 참조.

5) 胡雲翼, 《宋詩研究》(巴蜀書社, 1993), 117-119쪽 참조.

6) 錢鍾書, 《宋詩選注》(人民文學出版社, 1988), 216-218쪽 참조.

7) 위의 책, 218쪽: 田園詩又獲得了生命, 擴大了境地, 范成大就可以跟陶潛相提并稱, 甚至比他後來居上.

2. <사시전원잡흥>의 유형

<사시전원잡흥>은 60수의 연작시로 범성대는 자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淳熙 丙午年(순희 13년/ 1186년) 병이 차도가 조금 있어 다시 석호의 옛 집으로 돌아와, 들에서 접한 모든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시 한 수씩 썼는데, 연말이 되니 60편의 시가 되었다. 그래서 <사시전원잡흥>이라 이름했다.⁸⁾

병으로 관직에서 물러나와 고향에서 휴식을 취하던 그가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고향의 이곳저곳을 돌아보았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그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시로 써서 <사시전원잡흥> 60수를 엮었다. <春日田園雜興> 12수 · <晚春田園雜興> 12수 · <夏日田園雜興> 12수 · <秋日田園雜興> 12수 · <冬日田園雜興> 12수에 석호의 봄과 늦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풍경과 각 계절을 통해 만난 전원의 삶이 오롯이 담겨있다.

전종서는 중국 전통 전원시의 갈래를 설명하며, 범성대의 <사시전원잡흥>이 그러한 전통을 집대성했다고 평가하였다.

<시경·빈풍>의 <칠월>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四時田園詩로, 일 년간 농민들의 고달픈 노동과 고생스러운 생활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 시는 전원시의 모범이 되지를 못했다. 후세의 전원시들은 강엄이 <雜體>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모두 도잠을 본보기로 삼았다. 도잠은 <西田穫早稻>, <下澗田舍穫>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느낀 고통들을 시로 노래했다. 그렇지만 왕유의 <渭川田家> · <偶然作> · <春中田園作> · <淇上田園即事>와 저광희의 <田家即事>(5古와 7律) · <田家雜興> 등등 전원시의 풍격을 세운 작품들은 도잠의 <懷古田舍> · <歸田園居> 등의 계시를 받아, 농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8) 范成大, 《范石湖集》 卷27(上海古籍出版社, 2006), 372쪽: 淳熙丙午, 沉疴少紓, 復至石湖舊隱, 野外即事, 輒書一絕, 終歲得六十篇, 號四時田園雜興.

樂天知命에 역점을 두어, 전원시의 내용은 노동에서 은일로 바뀌었다. 송대 구양수와 매요신이 나누어 읊은 <歸田四時樂>⁹⁾과 같은 것이 보다 진실하고 솔직한 것은 부귀한 생활에 싫증을 내어 새롭게 바꾸고자 했다는 것이다.

서양문학에서 목가의 전통은 목초들이 얼마나 푸르고 연한지, 양들이 얼마나 살찌고 순종적인지, 천진하고 즐거운 목동과 양치는 아가씨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땅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를 묘사한다. 어떤 이는 읽다가 싫증을 느끼고서 시 속에 하나의 사물이 빠져 있다고 말하니, 바로 늑대다. 우리들이 중국의 전통적인 전원시를 보아도 하나의 사물이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낀다. 바로 개이다. 地保¹⁰⁾나 公差¹¹⁾같은 통치계급의 앞잡이와 그들을 대표로 하는 농민 약탈과 압박의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확실히 아주 많은 古詩들이 이러한 현상을 묘사하였다. 예를 들면 유종원의 <田家> 두 번째 시와 장적의 <山農詞>, 원진의 <田家詞>, 섭이중의 <詠田家> 등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들은 전원시 계열에 속하지는 않는다.

매요신의 예로 이런 전통의 속박을 설명할 수 있다. 매요신 편에서 그가 전원시의 즐거움을 비난한 <田家語>를 선별하여 넣기는 했지만, 그는 <續永叔歸田樂>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 <田家四時>도 지었다. 매요신은 <田家四時>의 제4수 말미에서 농민들이 해를 넘기기 어렵다고 가볍게 짚고 넘어간 것 외에는 왕유와 저광희 이래 전원시의 정서와 재료를 그대로 답습했다.

진관의 <田居> 4수는 “내일 비단세금 내는 날, 이웃집 아이가 성으로 들어가네”와 “추수를 해도 감히 저장할 생각하지 못하는 건, 정오 무렵이면 나타나는 세금 재촉하는 관리 때문이래오”라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묘사를 통해 드러낸 것이 조금도 없으며 전체 풍격은 여전히 저광희와 왕유를 모방한 것으로, 글을 다듬고 꾸민 것은 큰 단점이다.

범성대의 <사시전원잡흥> 60수에 이르러서 비로소 <七月>과 <懷古田畝>·<田家詞> 세 갈래의 실마리가 하나의 매듭으로 묶어져, 현실을 벗어난 전원시에 흙 내음과 피땀이 어려 있게 되었다. 그의 세밀하고 친절한 소견을 근거로 일 년 사계절 농촌의 노동과 생활을 비교적 완전한 모습으로 생동감 넘치게 묘사하였다. 이로 인해 전원시는 또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경계를 확대시켰다.¹²⁾

9) 구양수가 <歸田四時樂·春夏> 2수를 짓고, 매요신이 이에 답하여 <續永叔歸田樂·秋冬> 2수를 지었다.

10) 청나라와 중화민국 초기에 지방 관청에서 부역을 모집하고 재물을 징수하는 일을 처리하던 사람으로, 秦·漢때의 亭長, 隋·唐때의 里正, 宋나라의 保正에 해당한다.

11) 관아의 심부름꾼으로 아전을 가리킨다.

12) 錢鍾書, 《宋詩選注》, 216~218쪽; 《詩經》里《邇風》의 <七月>是中國最古的四時田園詩, 敘述了農民一年到頭的辛勤生產和刻苦生活。可是這首詩沒有起示範的作用; 後世的田

<사시전원잡흥>의 원류로 전종서가 언급한 세 갈래의 전원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

첫째, 전종서도 분명 언급했듯이 유종원·장적·원진이 전원의 고통을 노래한 시들은 이전의 전통적 전원시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학자들도 동의하는 것으로,¹³⁾ 이러한 시들은 '전원'을 소재로 한 사회비판 성격의 사회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들을 전원시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이후 송대 시인들이 왕유와 저광희 풍의 전원시를 창작하면서 부분적으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사회시풍의 구절을 삼입했기 때문이고, 범성대 스스로가 그러한 사회시를 전원시와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범성대부터 전원을 소재로 한 사회시가 전원시의 범주에 편입되어, 한 해 동안 전원에서의 삶을 기록한 <사시전원잡흥>에 도연명 풍의 전원시와 성격이 다른 사실주의적 사회시풍의 시도 함께 담기게 되었다.

두 번째는 도연명의 전원시와 왕유·저광희의 전원시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

園詩，正像江淹的〈雜體〉詩所表示，都是從陶潛那里來的榜樣。陶潛當然有〈西田穫早稻〉、〈下潁田舍穫〉等寫自己'躬耕'、'作苦'的詩，然而王維的〈渭川田家〉、〈偶然作〉、〈春中田園作〉、〈淇上田園卽事〉和儲光羲的〈田家卽事〉（五古和七律）、〈田家雜興〉等等建立風氣的作品，是得了陶潛的〈懷古田舍〉、〈歸田園居〉等的啓示，著重在'隴畝'的安定閒適、樂天知命，內容從勞動過渡到隱逸。宋代像歐陽修和梅堯臣分詠的〈歸田四時樂〉更老實不客氣的是過膩了富貴生活，要換個新鮮。西洋文學里牧歌的傳統老是形容草多麼又綠又軟，羊多麼既肥且馴，天真快樂的牧童牧女怎樣在塵世的乾淨土里談情說愛；有人讀得膩了，就說這種詩里漏掉了一件東西——狼。我們看中國傳統的田園詩，也常常覺得遺漏了一件東西——狗，地保公差這一類統治階級的走狗以及他們所代表的剝削和壓迫農民的制度。誠然，很多古詩描寫到這種現象，例如柳宗元〈田家〉第二首、張籍〈山農詞〉、元稹〈田家詞〉、聶夷中〈詠田家〉等等，可是它們不屬於田園詩的系統。梅堯臣的例可以說明這個傳統的束縛力；上面選了他駁斥'田家樂'的〈田家語〉，然而他不但作了〈續永叔歸田樂〉，還作了〈田家四時〉，隻在第四首末尾輕描淡寫的說農民過不了年，此外依然沿襲王維、儲光羲以來的田園詩的情調和材料。秦觀的〈田居〉四首隻提到了'明日輪耜租，鄰兒入城郭'和'得穀不敢儲，催科吏傍午'，一點沒有描畫發揮，整個格調也還是摹仿儲、王，並且修詞很有毛病。到范成大的〈四時田園雜興〉六十首才彷彿把〈七月〉、〈懷古田舍〉、〈田家詞〉這三條線索打成一個總結，使脫離現實的田園詩有了泥土和血汗的氣息，根據他的親切的觀感，把一年四季的農村勞動和生活鮮明地刻畫出一個比較完全的面貌。

- 13) 葛曉音도 중당 이후 전원 생활을 주제로 한 시가가 많았지만 주제는 시골 생활의 절고를 반영하는 것으로 변화되었기에 시의 내용, 분위기, 표현 방식까지 성당 이전의 전원시와 판이하여 협의의 전원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遼寧大學出版社, 1993), 71쪽 참조)

이다. 도연명의 전원시가 직접 농사를 지으며 느낀 점을 읊은 ‘노동의 노래’라고 한다면, 왕유와 저광희 등의 산수전원시파의 시인들의 전원시는 벼슬길에서 뜻을 이루지 못해 전원엔 은거하며 읊은 ‘은일의 노래’이다. 범성대는 남송의 시인들 중에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높은 벼슬길을 지나온 후, 오랜 지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창작 배경 상 성당의 산수전원시파 시인들과는 차이가 있다. 범성대가 읊은 전원의 즐거움은 벼슬길에서의失意로 전원에서 위안 받았던 산수전원시파보다는 번잡한 속세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과 한가로움을 노래한 도연명의 전원의 즐거움에 가깝다.

본고에서는 전중서의 분류 즉 《시경·빈풍》의 <칠월>류의 농가월령가풍의 전원시와 도연명 류의 전원의 즐거움을 읊은 전원시, 원진 류의 전원의 고통을 읊은 전원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시전원잡흥>을 분석할 것이다.

(1) 농가월령

《시경·국풍》 중에서 <邠風>은 창작 시기가 가장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邠’은 원래 주나라의 시조인 公劉의 주거지로, 오늘날 陝西省 旬邑縣과 彬縣 부근이다. 주나라 사람들이 농업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빈풍>의 시 대부분은 농사와 관련된 시들이다. 그중 <칠월>은 농가의 세시를 담은 농가월령가로 분류될 수 있다. 농가월령체는 원래 한 해의 기후 변화와 의식·농가 행사 등을 달별로 읊은 것인데, <칠월>은 달별로 장을 나누어 읊은 것은 아니지만 장마다 주제를 달리하여 농사일을 노래하고 있다.¹⁴⁾ <칠월>의 서장에

14) 7장으로 이루어진 <칠월>의 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7월부터 2월까지 겨울을 대비하고 농사를 준비함. 2장: 봄이 되어 뽕을 따 누에치는 여자의 일이 시작됨. 3장: 누에치는 일에 정성을 다하여 내년 준비도 미리 한 후 길쌈하고 염색하여 옷을 지음. 4장: 사냥을 하여 가죽옷을 만듦. 5장: 5월부터 10월까지 곤충들의 변화를 통해 계절을 인식하고 겨울나기 위해 집 보수. 6장: 6월부터 10월까지의 먹거리. 7장: 추수한 후 궁실과 관부의 역을 나가 지붕 보수. 8장: 11월부터 2월까지 얼음 깨고 제사 지내기. 9월 10월 잔치 열어 임금의 만수무강 기원.

해당하는 1장을 감상해보자.

七月流火,	칠월에 대화성이 서쪽으로 흘러내려 가거든,
九月授衣.	구월에 추위 막을 옷을 준비하네.
一之日疇發,	동짓달이 되면 찬바람 불고,
二之日栗烈.	선달에는 매섭게 추워지네.
無衣無褐,	옷과 털옷 없으면,
何以卒歲.	어찌 한해를 넘길까?
三之日于耜,	정월엔 쟁기 준비하고,
四之日舉趾.	이월에는 밭꿈치 들고 쟁기질 하네.
同我婦子,	내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饁彼南畝.	저 남쪽 밭두둑에 밥 가져오면
田畯至喜.	권농관이 기뻐하네.

<사시전원잡흥>에서도 계절마다 행해지는 농사에 대해서 언급된 시가 10수 있다. <칠월>과 차이가 있다면 칠월은 달마다 행해지는 농사를 노래했고, <사시전원잡흥>은 계절과 절기에 중점을 두어 농사를 노래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른 절기는 청명절과 한식,¹⁵⁾ 上巳日¹⁶⁾이다. 청명절에 대한 시를 감상해보자.

高田二麥接山青,	높은 밭의 보리와 밀 푸른 산 빛과 이어지고,
傍水低田綠未耕.	물길 옆 나지막한 논도 아직 갈지 않아 질푸른 빛.
桃杏滿村春似錦,	앵두·살구나무 가득한 마을의 봄은 비단같이 아름답고,
踏歌稚鼓過清明.	밭장단 북소리 속에 청명절 무르익어가네.

- <춘일전원잡흥> 제3수

15) <春日田園雜興> 其7: 寒食花枝插滿頭, 荷裙青袂幾片舟. 一年一度遊山寺, 不上靈巖即虎丘.
 <春日田園雜興> 其8: 郭裏人家拜埽回, 新開醪酒薦青梅. 日長路好城門近, 借我茅亭煖一杯.

16) 3이 3번 겹친 길일로 여기며 봄이 본격적으로 돌아온 절기로,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온다는 날이다. 그해에 흰나비를 먼저 보면 상복을 입게 되고, 색이 있는 나비를 먼저 보면 길한 일이 있다고 믿었다. 이날 약물을 먹으면 한 해 동안 무병하게 지낼 수 있다고 전해진다. 除厄의 의미로 몸을 깨끗이 씻고 하루 동안 교외에 나가 즐긴다.
 <晚春田園雜興> 其4: 湔裙水滿綠蘋洲, 上巳微寒懶出遊. 薄暮蛙聲連曉鬧, 今年田稻十分秋.

보리와 밀이 아직 익지 않았고 논도 모내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은 봄날, 마을엔 앵두꽃 살구꽃이 만발하여 비단을 펼쳐 놓은 것처럼 아름답고, 봄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가득한 청명절은 즐겁기만 하다. 본격적인 논농사를 시작하기 전 분주하게 봄맞이를 하며 봄을 즐기는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봄가을로 토지신에게 비는 제사에 대해서 노래했는데 春社¹⁷⁾와 秋社¹⁸⁾이다. 춘사와 추사는 일종의 절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입춘과 입추 후 다섯 번째 戊日을 春社日·秋社日이라고 한다. 춘사일에는 토지신에게 농사의 순조로움을 비는 제사를 지내고, 추사일에는 그해의 추수에 대해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다.

社下燒錢鼓似雷，
日斜扶得醉翁回。
青枝滿地花狼藉，
知是兒孫鬪草來。

사당에선 지진 불사르고 북소리는 천둥소리 같은데,
해 저물녘 술 취한 어르신 부축해 돌아온다.
땅에 가득한 푸른 가지와 어지럽게 흩어진 꽃잎,
아이들이 鬪草한 것 알겠네.

- <춘일전원잡흥> 제5수

춘사일의 시골벽적한 풍경과 기이한 화초를 꺾어 들고 와 서로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아이들의 투초놀이를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다.

농사와 직접 연관된 일들을 다룬 시도 있다. 양잠기간 동안에는 한 달 동안 대문 꼭 걸어 잠그고 이웃집에도 출입하지 않는 금기를 다루기도 하였으며,¹⁹⁾ 보리 이삭이 켈 때쯤 불어 닥치는 추위 속에서 모내기를 하는 풍경을 노래하기도 했으며,²⁰⁾ 추수를 노래한 시도 있다.

秋來只怕雨垂垂，
甲子無雲萬事宜。

가을 오면 비 주룩주룩 내리는 것 두려운데,
갑자일에 구름 하나 없으니 모든 일 잘되리.

17) <春日田園雜興> 其4: 老盆初熟杜茅柴, 攜向田頭祭社來, 巫媼莫嫌滋味薄, 旗亭官酒更多灰。
<春日田園雜興> 其5: 社下燒錢鼓似雷, 日斜扶得醉翁回, 青枝滿地花狼藉, 知是兒孫鬪草來。
18) <冬日田園雜興> 其5: 乾高寅缺築牛宮, 卮酒豚蹄酌土公, 牯犍無瘡犢兒長, 明年添種越城東。
19) <晚春田園雜興> 其6: 三旬蠶忌閉門中, 鄰曲都無步往蹤, 猶是曉晴風露下, 采桑時節暫相逢。
20) <夏日田園雜興> 其2: 五月江吳麥秀寒, 移秧披絮尚衣單, 稻根科斗行如塊, 田水今年一尺寬。

穫稻畢工隨曬穀。
直須晴到入倉時。

벼 수확 마치자마자 나락 햇볕에 말려야 하니,
맑은 날씨 곡식 창고에 넣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리.
- <추일전원잡흥> 제6수

농가에선 가을철 갑자일이 맑으면 길조로 여긴다고 한다. 날 맑은 갑자일 구름 한 점 없으니 이번 가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듯하여 기뻐하며, 추수하는 농민들의 마음 헤아려 맑은 날이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시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吳沆은 《環溪詩話》 卷下에서 범성대의 <사시전원잡흥>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농사와 잠업, 땀나무 장만, 방목에 관련된 시로는 응당 《모시·빈풍》 및 범성대의 <사시전원잡흥>을 비교해 익숙할 정도로 봐야, 부지불식간에 시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비로소 시의 구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²¹⁾

오향은 농사와 관련된 시로 <칠월>을 비롯한 《시경·빈풍》의 시와 범성대의 <사시전원잡흥>을 으뜸으로 꼽으며, 이를 비교하여 세밀하게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전원시를 지을 때 시의 구상을 제대로 하게 된다고 했다. <칠월>은 생생한 농사의 경험을 노래한 전원시이며, 범성대의 <사시전원잡흥> 또한 1년 동안의 경험과 관찰에서 나온 현실적 전원시이기에, 이 두 작품을 전원시 창작의 모범으로 꼽은 것이다.

범성대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하느라 고생하는 형을 도와 여동생들을 출가시키기 위해 직접 집안 살림을 진두지휘하였다. 또 41세가 되던 건도 2年(1166) 3월에 ‘言者論列’ 때문에 관직에서 해임당하고,²²⁾ 고향인 석호로 돌아가 황무지를 개간하여 나무를 심고 직접 농사일을 하며, 후에 <사시전

21) 《環溪詩話》 卷下: 且如農桑樵牧之詩, 當以《毛詩·爾風》及石湖<田園雜興>比熟看, 夢中亦解得詩, 方有意思長益。(《楊萬里范成大資料集編》(中華書局, 1985), 147쪽.)

22) 周必大, <資政殿大學士贈銀青光祿大夫范公成大神道碑>: 言者以不先攝爲超遷, 宰相曰“著廷間擢左右史, 顧不可爲郎耶?”三月, 以言者罷, 乃主管台州崇道觀.

원잡흥>의 토대가 된 석호의 농장을 경영하였다. 이런 배경은 그를 농사에 대해 잘 이해하고²³⁾ 농민을 잘 이해하는 관리로 성장하게 했으며, <칠월>풍의 농가의 세시를 노래한 시들을 창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2) 전원의 즐거움

도연명의 전원시는 속세를 떠나 자연과 벗하며 직접 농사를 체험하면서 느낀 전원의 기쁨과 직접 경험한 전원생활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그의 <癸卯歲始春懷古田舍> 제2수를 감상해보자.

先師有遺訓,	공자께서 남겨주신 가르침에는
憂道不憂貧.	도를 걱정하되 가난은 걱정 말라고 하셨네.
瞻望邈難逮,	우러러보나 아득하여 따라가기 어렵지만
轉欲志長勤.	천천히 오래도록 근면하게 지켜보려 하네.
秉耒歡時務,	직접 쟁기 잡고 즐거이 농사지으며,
解顏勸農人.	웃는 낯으로 농부들 격려하네.
平疇交遠風,	넓고 평평한 밭에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니,
良苗亦懷新.	좋은 싹이 새 기운 품었어라.
雖未量歲功,	한해 농사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 없지만,
卽事多所欣.	눈앞의 농사일이 즐겁기 한량없네.
耕種有時息,	밭 갈고 씨 뿌리다가 이따금 쉬지만,
行者無問津.	나루터 물어오는 길손 없네.
日入相與歸,	날 저물면 함께 돌아와.
壺漿勞近隣.	항아리 술로 이웃끼리 위로를 하네.
長吟掩柴門,	사립문 닫은 채 깊어가는 정담 나누며,
聊爲隴畝民.	한가로이 밭 가는 농사꾼 되리라.

23) 범성대는 <勞畚耕>에서 당시 뭇땅에서 생산되던 쌀 종류와 특징을 자세하게 묘사할 정도로 농사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

長腰瓠犀瘦,	長腰는 조롱박처럼 호리호리하고,
齊頭珠顆圓.	齊頭는 구슬처럼 둥글둥글.
紅蓮勝彫胡,	紅蓮는 菘米(彫胡米)보다 맛있고,
香子馥秋蘭.	香子는 가을 난초보다 향기롭다.

도를 걱정하지 가난은 걱정하지 말라던 공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쉽지 않겠지만 하루하루 근면하게 농사를 지으며 수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멀리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이랑마다 싱싱한 싹들이 움트는 봄, 밭 갈고 씨 뿌리며 농사를 짓는다. 익숙한 일이 아니라 얼마만큼 수확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농사짓는 이들과 함께 어울려 농사짓고, 함께 돌아와 술 한 잔에 고된 하루를 이야기하며 이런 저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야말로 사람 사는 재미가 아닌가? 도연명은 그렇게 전원 속에서 농부들과 하나가 되어 삶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기록한 생생한 전원시를 창작했다.

범성대 또한 몇 해에 걸쳐 자신의 고향에 만년을 보낼 별장을 짓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매화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으면서 전원의 삶을 살았다. 그 결과가 <사시전원잡흥>이며, 이 연작시 안에는 도연명처럼 전원의 즐거움과 전원의 생활을 읊은 시들이 많다.

吉日初開種稻包,
南山雷動雨連宵。
今年不欠秧田水,
新漲看看拍小橋。

좋은 날 골라 처음으로 벼 모종 가마니 여니,
남산 쪽에서 천둥소리 들려오고 비 즐기차게 쏟아지네.
금년에는 못자리 물이 부족하지 않으리,
새로 불은 강물 작은 다리 두드리는 것을 보니.

- <춘일전원잡흥> 제11수

모내기를 위해 모판을 준비하며 작년에 잘 보관해두었던 모종 가마니를 연다. 때마침 천둥소리와 함께 빗줄기가 밤새 쏟아져 내린다. 그 빗소리에 시인은 불어 넘실대는 강물을 바라보는데 파도는 다리를 집어삼킬 듯 철썩거린다. 그러한 풍경을 바라보며 물 넘실거릴 논을 생각하니 시인은 마음이 든든해져 즐겁기만 하다. 농사꾼의 마음이 되어버린 것이다.

봄날 바구니 하나 가득 봄나물을 따오는 아가씨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도 있고,²⁴⁾ 모내기 끝난 늦봄 밤비 내린 후 새벽 밭일 나가지 않고 한가로이 피꼬리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낭만도 있으며,²⁵⁾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농사일 하

24) <晩春田園雜興> 其8: 茅針香軟漸包茸, 蓬蘽甘酸半染紅. 采采歸來兒女笑, 杖頭高挂小筠籠.

는 부모님 옆에서 자연스레 농사일을 익히는 아이들의 모습도 있고,²⁶⁾ 하루 종일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했기에 매미와 개구리들의 시끄러운 울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이 들어버린 모습도 있다.²⁷⁾ 붉은 구기자와 노란 국화꽃 만발한 선명한 가을 귀뚜라미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느끼는 서글픈 감성이 있고,²⁸⁾ 추수 끝난 후 향아리 향아리마다 추수한 곡식들로 가득 채워 놓고 중앙 절 때 마실 국화주에 화색 돌아 입맛 다시는 시인의 모습도 있으며,²⁹⁾ 고된 일 년의 농사를 마치고 새로 지붕 엮고 방마다 고운 진흙으로 새로 마감질 한 후 세찬 겨울바람 소리 들으며 한가로이 이웃집의 통소 소리 감상하는 여유로움도 있다.³⁰⁾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농촌과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송아지·강아지·나비·제비·오리·잠자리·올챙이·개구리·매미 등의 자연물들이 함께 어우러진 석호의 모습은 그로 하여금 따스한 어머니 품과 같은 고향을 느끼게 해주었고, 범성대는 그곳이 바로 무릉도원이라고 생각했다.

探梅公子款柴門，
枝北枝南總未春。
忽見小桃紅似錦，
卻疑儂是武陵人。

매화 구경하는 이 사립문 두드리는데,
북으로 남으로 뻗어나간 가지들 봄은 아직 멀었네.
문득 복숭아꽃 비단처럼 붉게 피어오른 것 보고서,
질은 향기에 내가 무릉도원 사람이 아닐까 했네.

- <동일전원잡흥> 제11수

복숭아꽃 매화꽃 흐드러지게 핀 석호의 이른 봄은 무릉도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석호는 그가 사랑한 전원이었고, 그가 사랑한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곳이었다. 또 일 년 동안 밤낮으로 성실하게 지내왔기에 농한기의 휴식은 더욱 달콤했고 무릉도원에서 행복하게 살던 이들처럼 행복만이 충만할 수 있

25) <晚春田園雜興>其10: 雨後山家起較遲，天窗曉色半熹微。老翁欹枕聽鶯囀，童子開門放燕飛。

26) <夏日田園雜興>其7: 書出耘田夜績麻，村莊兒女各當家。童孫未解供耕織，也傍桑陰學種瓜。

27) <夏日田園雜興>其12: 螭蟾千萬沸斜陽，蛙黽無邊聒夜長。不把癡癡相對治，夢魂爭得到藜林。

28) <秋日田園雜興>其1: 杞菊垂珠滴露紅，兩蛩相應語莎叢。蟲絲胃盡黃葵葉，寂歷高花側晚風。

29) <秋日田園雜興>其10: 菽粟瓶罍貯滿家，天教將壽作生涯。不知新滿堪窺未，今歲重陽有菊花。

30) <冬日田園雜興>其3: 屋上添高一把茅，密泥房壁似僧寮。從教屋外陰風吼，臥聽籬頭響玉簫。

었다. 그것이 바로 범성대가 <사시전원잡흥>에서 보여준 전원의 즐거움이고 전원의 생활이었다.

(3) 전원의 고통

중당에서 백거이와 함께 신악부 운동을 전개했던 원진은 전원시를 창작할 때에도 시대상을 반영하는 현실주의적 시를 썼다. 그의 <田園詞>를 감상해 보자.

牛咤咤, 田确确.
 旱塊敲牛蹄趵趵.
 種得官倉珠顆穀.
 六十年來兵簇簇.
 月月食糧車轆轤.
 一日官軍收海服.
 驅牛駕車食牛肉,
 歸來收得牛兩角.
 重鑄鋤犁作斤屬.
 姑舂婦擔去輸官.
 輸官不足歸賣屋.
 願官早勝讐早覆.
 農死有兒牛有犢,
 誓不遣官軍糧不足.

소는 헐떡이고 밭은 자갈 구더기,
 가문 땅에 소 모는데 발자국 소리만 타닥타닥.
 지은 농사는 모두 관가 창고의 곡식 되고,
 60년 동안 전쟁터에 끌려간 병졸들은 수수룩.
 다달이 식량 실어가는 수레소리 덜거덕덜거덕하는데,
 하루는 관군이 바닷가 지역까지 와서
 소 몰아 수레 끌고 가더니 소까지 먹어치웠으니,
 돌아온 것은 소뿔 2개뿐.
 호미와 쟁기 다시 녹여 무기 만들고,
 시어미 며느리 서로 머리에 이고 관가로 나르네.
 징수관이 부족하다면 돌아가 집이라도 팔아야 하니,
 관리들이 빨리 적을 무찌르기만을 바라네.
 농민이 다 죽고 아이만 남고 소도 송아지만 남았지만,
 맹서컨대 관리 보내지 않아도 군량 부족하지 않으리.

농사를 지어도 농부들 몫이 아닌데 가혹한 균역까지 더해져, 농민들은 살아갈 도리가 없다. 적이 빨리 소탕되면 나올까 바라지만 그 또한 요원하기만 하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어떻게 해서든 나라에서 재촉하는 세금은 낼 터이니, 관리들을 보내 세금 독촉을 하지 말기를 바라는 소망은 처절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내용이 당대부터 전원시에 등장하게 되었다.

범성대가 살았던 남송의 농민들은 이전에 비해 더 힘겨운 삶을 살았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했던 송나라는³¹⁾ 남송에 와서 인구의 감소가 있기는 했지만, 경제가 안정되자 인구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영토는 북송에 비해 현저히 줄었기에 호당 경작면적은 반으로 감소했다.³²⁾ 감소된 농토도 대부분 부호와 권력가들에 의해 잠식당해 농민들은 소작민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작도 할 수 없어 유랑민이 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宋史》의 <食貨志>의 淳祐 6년 조에 실려 있는 殿中侍御史 겸 侍講인 謝方叔의 말을 살펴보자.

밖으로는 국토가 날로 황폐해지고 안으로는 인구가 날로 늘어나는데, 권문세가는 날로 번성하여 토지 겸병의 악습이 날로 늘어나니, 백성들은 날로 가난해지고 경제는 날로 무너져, 상하가 모두 고통스럽고 꺾박받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 부귀하고 권세를 잡은 이들이 임금의 전권을 얻은 것이 아닌데도 아는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무릇 수많은 백성을 기르는 도구는 모두 곡식에 근본을 두고 있으며, 곡식의 생산은 모두 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고혈은 모두 권문세가에 귀속되고 있는데,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쌀이 백만 섬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³³⁾

경작지는 줄고 세금은 늘고, 그 세금은 모두 권문세가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현실 속에 가장 꺾박받는 것은 농민들이었다. 범성대는 淳熙 3년(1176) 四川 置制使로 있을 때 효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근본이 공고해야만 나라가 편안하기에, 제왕의 흥성함에 있어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서 나라의 기틀을 세운 경우는 아직

31) 송대 초기에는 1억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며, 12세기에는 약 1억 2000만 수준이었다.(《新中國史》, 존 킹 페어뱅크·밀 골드만 저, 김형중·신성곤 역(까치, 2005), 119쪽 참고)

32) 북송 政化 6년 매 가구당 약 20畝 정도였던 것이 남송 시기에 이르러서는 겨우 12畝 정도로 거의 2/5정도 감소하였다.(《南宋의農村經濟》, 梁庚堯(新星出版社, 2006), 86쪽 참조)

33) 《宋史》 권173, <食貨志> 上(中華書局, 4179-4180쪽): 外之境土日荒, 內之生齒日繁, 權勢之家日盛, 兼并之習日滋, 百姓日貧, 經制日壞, 上下煎迫, 若有不可爲之勢, 所謂富貴操柄者, 若非人主之所得專, 識者懼焉. 夫百萬生靈資生養之具, 皆本於穀粟, 而穀粟之產, 皆出於田, 今百姓膏腴皆歸貴勢之家, 租米有及百萬石者.

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仁政 뿐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요역을 줄이시고, 세금을 줄이셔서, 요역과 세금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셔서 백성들을 편안케 하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의 힘이 남음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셔서 천자의 덕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짐을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비록 하늘이 이러한 변화를 돕지 않아, 오락개와 도적들이 횡행하고 수해·한재가 생긴다 하여도, 어찌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이 흔들려 경거망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³⁴⁾

범성대는 민본사상과 인정정치를 정치이상으로 삼았는데, 이 상소문에서 仁政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금 면제와 요역 감량을 언급했다. 이는 당시의 부역과 조세가 얼마나 엄정하고 혹독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으로,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이 임금과 조정에 의해 끊임없이 경시받아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

범성대의 백성들에 대한 애민사상은 이러한 상소문에서 그치지 않고, 관리가 된 후에 徽州司戶參軍으로 6~7년간 徽州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직접 목도한 백성들의 삶을 <樂神曲>·<縑絲行>·<田家留客行>·<催租行> 등의 시에 담아내었다. 이 시들은 두보와 원진 등의 사실주의 시인들의 현실비판 의식을 담아내어, 당시의 농민들이 얼마나 처참한 현실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소란스러운 조정을 떠나 석호에 물러나 은거하고 있을 때도 퇴색하지 않았다. 그의 대표작인 <사시전원잡흥>에도 그러한 사상이 반영된 시가 6수 수록되어있다.

세금독촉은 추수를 하는 가을이면 더 심해져, <추일전원잡흥> 12수 중 1/4인 3수가 관리들의 세금수탈로 인한 전원생활의 고달픔을 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계절에 세금독촉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采菱辛苦廢犁鉏,
血指流丹鬼質枯.

쟁기 호미 다 팽개치고 마름풀 따는 고통,
손가락에선 붉은 피 흐르고 물골은 초췌하여 귀신같네.

34) 《歷代名臣奏議》 권108, <論邦本疏>: 臣聞民惟邦本, 本固邦寧, 帝興王成, 未有不得民而能立邦家之基也. 得民有道, 仁之而已, 省徭役, 薄賦歛, 蠲其疾苦而便安之, 使民力有餘而其次心油然而德之撫我, 則雖天不能使之變, 而況蠻夷盜賊水旱之作, 安能搖其本而輕動哉?

無力買田聊種水，
近來湖面亦收租。

논밭 살 돈 없어 물에 자라는 마름에 의지하는데,
요사이엔 호수에서도 조세를 받아간다네.

- <하일전원잡흥> 제11수

마름은 한 해 살이 풀로 그 열매를 물에서 나는 밤이라고 하여 ‘물밤’이라고도 부르는데, 녹말과 지방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농사지어 곡식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농사지을 땅이 없지만 먹고 살아가하기에 수면 위에 마름을 따서 먹는다. 물 위에서 쟁기며 호미가 아무 소용없기에 맨손으로 마름 줄기를 잡아 열매를 따느라 열 손가락은 모두 상처투성이고 미처 딱지도 앓지 못해 피가 줄줄 흐른다. 또 항상 주려있기에 초췌한 몸골은 귀신과도 같다. 그런데 관아에서는 이 마름조차 맘대로 채취할 수 없다고 한다. 마름을 따가려면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다. 산과 강 어느 하나 임금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다지만, 어찌하여 밭 한 포기 논 한 마지기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름을 따는 호수에 세금을 매기는 관아의 처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추수를 맞이한 가을이 되면 관리들의 횡포는 더 심해진다.

租船滿載候開倉，
粒粒如珠白似霜。
不惜兩種輸一斛，
尙贏糠覈飽兒郎。

창고 문 열리기 기다려 배에 쌀 가득 싣는데,
구슬 같은 쌀 알알이 서릿발 같이 하얗구나.
2종 세금 내면서 1곡 손해 보는 거야 아깝지 않으나,
남은 쭉쟁이로라도 아이들을 배불리 먹였으면.

- <추일전원잡흥> 제9수

봄 여름 가을 내내 피땀 흘려 구슬같이 싣하고 서릿발 마냥 하얀 쌀을 거둬 들였지만, 농부의 뭍이 아니다. 여차피 추수한 쌀은 세금으로 모두 내야하는 것이니, 아이들에게 흰 쌀밥 먹이고자 하는 꿈은 다 버렸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성하지 않은 쭉쟁이들 골라놓은 것이라도 세금으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라도 있어야 아이들 배 곰리지 않고 먹일 수 있기에 간절히 바란다. 매요신의 <陶者>라는 시가 연상된다.

陶盡門前土,	문 앞의 흙이 다 없어지도록 기와를 만들어도
屋上無片瓦.	자기 집 지붕에는 기와 조각 하나 없는데,
十指不露泥,	열 손가락에 흙 한 점 묻히지 않는 사람은
鱗鱗居大廈.	비늘처럼 기와 정연한 저택에 살고 있다.

고생은 농민과 기와장이가 다 하고, 그들의 피와 땀으로 얻은 곡식과 기와는 모두 나라님과 세력가들의 차지이다.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다. 그래서 범성대는 그 사실에 아파하며 <사시전원잡흥>에 농민들의 통곡과 눈물을 아로새겨 넣었던 것이다.

3. 전통 전원시의 초월

(1) 주관과 객관의 통합 - 실천적 전원

<칠월>을 비롯한 《시경》의 전원시들은 일 년 사계절 농사를 짓는 이들이 직접 경험한 전원이 대상이 되었다. 현실적인 전원에 대한 생생한 체험의 기록이다. 그리고 도연명의 전원시는 속세의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의 경지로서의 전원이 시의 대상이 되었다. 이상화된 주관적 전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도연명이 전원생활 중에 느낀 만족과 여유를 노래한 전원의 즐거움과 직접적인 노동을 통해 느낀 감회를 통해, 이후 시인들은 득의하지 못했을 때 찾아가갈 수 있는 도피처이자 이상향인 전원을 발견하게 되었다.

도연명 이후 전원시는 성당의 산수전원시파에 이르러 '노동'이 누락된 채 한적과 은일만을 노래하여 현실과 괴리되었다. 안사의 난 이후 날로 첨예화되는 사회 부조리 속에서 민생에 관심을 기울였던 시인들은 지나치게 은일만을 일삼은 전원목가식의 전원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실주의 정신에 입각해 생생한 삶이 담긴 새로운 풍격의 전원시를 썼다. 바로 백거이, 장

적, 원진 등에 의해 창작된 사회시적 성격의 전원시이다. 그들의 전원시는 관조적 입장에서 사회고발을 하기 위한 대상으로 전원을 선택했다. 즉 객관화된 전원이다.

범성대에게 있어 전원은 《시경》의 현실적 전원도 아니고, 도연명의 주관적 이상세계도 아니었으며, 원진의 시에서처럼 사회고발을 위한 객관적 전원도 아니었다. 범성대의 전원은 앞의 세 유형의 전원이 함께 어우러진 전원, 즉 실천적 전원이다. 비판적 사실주의와 낭만주의 게다가 농촌 다큐멘터리와 같은 '實寫'까지 이전의 전원시의 모든 유형이 <사시전원잡흥>에 녹아있다. 이러한 집대성적 창작이 가능했던 것은 범성대의 전원시가 가진 실천적 특성 때문이다.

범성대의 초기 전원시는 중만당의 사회시처럼 강렬한 사회비판을 담고 있지만,³⁵⁾ 30년이라는 관직생활을 거치면서 愛民과 비판의 대상이었던 전원의 이미지는 변화를 겪었다. 범성대는 陸游 못지않은 애국시인으로 관직에 있으면서 '民本思想'과 '仁政思想'을 구현하고자 했으며, 그러한 사상으로 전원을 바라보며 농민들의 고통에 가슴아파했다. 그는 관직에서의 경험을 살려 현실의 황폐한 전원을 격양가가 울려 퍼지는 전원으로, 무릉도원 같은 전원으로 만들곤 했다. 그래서 사회시를 전원시의 범주 안에 끌어들여 전원을 객관적으로 비판하면서 정치적 개혁을 통해 도연명이 노래했던 주관적이며 이상적인 전원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그는 건도 4년(1168) 7월에 處州 知府로 부임하여, 짧은 임기동안³⁶⁾ 그 지역 농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낡은 通濟堰을 보수하고, 《通濟堰記》를 편찬하고 《堰規》 20條를 제정하여 돌에 새겼다. 이 법규는 중국 農田水利史에 있어 저명한 水利法規라고 한다.³⁷⁾ 또 임기를 마친 후, 중앙관직으로 옮기면서

35) <樂神曲>, <催租行>(이상 《范石湖集》 권3), <後催租行>(《范石湖集》 권5), <清逸江>(《范石湖集》 권7) 등.

36) 다음 해 5월에 禮部員外郎 겸 崇政殿設書, 國史院編修官, 實錄院檢討官에 임명되어 臨按으로 떠났다.

37) 于北山, 《范成大年譜》(上海古籍出版社, 1987), 114쪽-121쪽 참조.

효종에게 상소를 올려 丁錢으로 인해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處州 백성들의 고통을 알려 旱傷路賦稅를 감면시켰다.³⁸⁾ 또 지방장관을 역임하면서 풍년 흉년을 가리지 않고 강제적으로 행해지던 ‘곡물수매(和糴)’를 폐기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었다. 이로 인해 폐기령이 시행된 그해 關外 보리수확량이 거의 배가 되는 양이 증가하기도 하였다.³⁹⁾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하나들 늘어나면서 범성대 전원시의 전원은 이상향의 전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실의 전원이 그가 원하던 대로 이상향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으로 인해 관할 백성들의 고달픈 현실을 조금도 덜어주지 못한 것에 미안해 하며 자신의 곤궁과 노고에 대해선 개의치 않고, 백성들이 탄식 소리가 들려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가졌다.⁴⁰⁾

그가 관직에 있으면서 ‘민본사상’과 ‘인정사상’이라는 자신의 정치관에 입각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했던 여러 정책들은 모두가 “但得田間無歎息”을 이루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즉 범성대가 꿈꾼 전원은 삶을 키워 가는 농민들의 미소가 있고 삶의 여유로움이 있어서, 풍성해 보이는 전원이었다. 출세와 부귀에 대한 욕심이 없는 곳이며, 드넓은 대지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는 농민들의 소박한 삶이 살아 숨 쉬는 현실이었던 것이다. 그 속에서 그는 농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전원생활을 운치 있게 읊조렸다.

村巷冬年見俗情，
鄰翁講禮拜柴荊。
長衫布縷如霜雪，
云是家機自織成。

겨울철 동네 골목마다 훈훈한 이웃 정 나눔,
이웃 할아버지 예의 갖춰 사립문 사이로 인사하시네.
눈서리 마냥 하얀 장삼 입으시고,
“이 옷은 집에서 직접 짠 것이랍니다” 하시네.

- <동일전원잡흥> 제12수

38) 《宋史全文》 권25 下, <宋孝宗四>: 范成大言, 處州丁錢太重, 遂有不學子之風. 有一家數丁者, 當重與減免.

39) 출처, 《범성대의 전원시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97쪽 참조.

40) <次韻汪仲嘉尚書喜雨>(《范石湖集》 권21): 老身窮苦不須憂, 未有毫分慰此州. 但得田間無歎息, 何須地上見錢流.

(2) 소재의 다양화

<사시전원잡흥>에서 이전의 전통 전원시와는 차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소재가 시재로 등장한 것이다. 도연명의 전원시에서 전원의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등장한 소재는 바로 술이었다. 술은 그저 근심을 잊기 위해, 또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등장한 소재였다. 그러나 범성대의 <사시전원잡흥>에서 등장한 술 중 煮酒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송대 민간의 풍속과 술 문화를 보여주는 소재로 등장한다.

煮酒春前臘後蒸，
一年長饗饗頭清。
麴居何似山居樂，
秣米新來禁入城。

봄 오기 전 煮酒를 설달 지나자마자 썰내서,
일 년 내내 煮酒의 상큼함 즐기리.
성안에 사는 것이 어찌 산에 사는 즐거움만 하리요.
참쌀 새로 나면 성안으론 일체 보내지 마오.

- <동일전원잡흥> 제9수

煮酒는 약용 술로 청주에 약재를 넣고 증탕해서 만든 술인데, 범성대는 煮酒로 인해 전원의 삶이 더 즐거워졌다며 이후로 참쌀을 수확하거든 성으로 보내지 말라는 당부도 곁하였다.

술 외에도 그의 전원생활을 즐겁게 해준 음식이 시에 많이 등장하는데, ‘水鄉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석호에서 생산되는 복어(河魴)·조기(石首)⁴¹⁾·농어(四腮鱸)⁴²⁾ 등의 생선과 생선회(鱠魚)에서부터 저민 橙子 절임(棖齏)·귤(橘)⁴³⁾·야생배추(踏地菘)·꿀에 절인 연근(蜜藕)⁴⁴⁾·토란·밤 등 다양하다.

柑柚無煙雪夜長，
地爐煨酒煖如湯。
莫嗔老婦無盤釘，

장작은 눈 내리는 긴 밤 연기 하나 없이 활활 타오르고,
방당 가운데 화로에선 술이 뜨겁게 데워지고 있네.
소반 가득 술안주 없다고 늙은 마누라 나무라지 말라며

41) <晚春田園雜興> 其11: 海雨江風浪作堆，時新魚菜逐春回。荻芽抽筍河魴上，棟子開花石首來。

42) <秋日田園雜興> 其11: 細搗棖齏買鱸魚，西風吹上四腮鱸。雪鬆酥膩千絲縷，除卻松江到處無。

43) <秋日田園雜興> 其12: 新霜徹曉報秋深，染盡青林作纈林。惟有橘園風景異，碧叢叢裏萬黃金。

44) <冬日田園雜興> 其7: 撥雪挑來踏地菘，味如蜜藕更肥醲。朱門肉食無風味，只作尋常菜把供。

笑指灰中芋栗香. 웃으며 재 속에서 향긋하게 익어가는 토란과 밤 가리키네.
- <동일전원잡흥> 제8수

이는 평범한 사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의 제재로 삼았던 송시의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송시는 시재로 다루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었던 사물들을 다른 관점으로 관찰하여 시 속에 끌어들여 보다 일상생활에 근접한 시가 되었다.⁴⁵⁾

4. 나가는 말

전원시는 唐代를 거치면서 도연명이 노래한 전원의 즐거움에 사실주의적 정신이 더해진 전원의 고통으로 인해 내용이 풍성해졌다. 또 송대에 와서는 性理學의 유행으로 인한 소재의 다양화라는 호재가 겹쳐, 그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다. 이처럼 시대적으로 풍성해진 전원시를 맛깔스럽게 포장하여 작품으로 내놓은 시인이 바로 범성대이다. 전종서의 평가대로 그의 <사시전원잡흥>은 전통적인 전원시의 여러 내용을 조화롭게 융합시켜 각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전원시의 집대성이다. 그러나 수량 면에서는 도연명 류의 전원의 즐거움과 전원생활을 묘사한 풍격에 치우친 면이 있다. 이는 전원시도 어쨌든 문학이기 때문일 것이다. 시가 아무리 현실을 반영하고 당시의 풍습을 여실하게 반영한다고 해도, 순수문학으로서의 감성조차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범성대는 그러한 아름다운 전원의 풍경과 그 전원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농사일들을 노래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전원의 고통을 노래한 사회시를 한가로운 전원생활과 은일을 노래하는 전원시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사회와 백성들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며 함

45) 吉川幸次郎 著・鄭清茂 譯, 《宋詩概說》(聯經出版事業公司, 1977), 18쪽 참조.

계 공존할 수 있는 전원을 꿈꾸었던 범성대의 노력과 실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농민들의 삶을 함께 체험하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느끼고 노래했다. 그래서 범성대의 전원은 實寫의 전원과 주관적으로 이상향화 된 전원, 객관적인 전원이 함께 어우러진 전원이 되었다. 실천에 의해 변화시킬 수 있고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전원의 생생한 풍습과 삶이 그려진 <사시전원잡흥>으로 인해 남송의 전원시는 흙 내음과 피땀이 함께 버무려진 전원시로 재탄생될 수 있었고, 일상적인 주제로 한 해 동안의 농촌생활을 더욱 생동감 있게 묘사한, 시간이 문자화된 전원시가 탄생되었다.

<參考文獻>

- 范成大, 《范石湖集》, 上海古籍出版社, 2006.
- 于北山, 《范成大年譜》, 上海古籍出版社, 1987.
- 湛之, 《楊萬里范成大資料彙編》, 中華書局, 1985.
- 胡雲翼, 《宋詩研究》, 巴蜀書社, 1993.
- 許總, 《宋詩史》, 重慶出版社, 1992.
- 房開江, 《宋詩》, 上海古籍出版社, 1992.
- 程千帆·吳新雷, 《兩宋文學史》, 上海古籍出版社, 1991.
- 錢鍾書, 《宋詩選注》, 人民文學出版社, 1988.
- 葛曉音, 《山水田園詩派研究》, 遼寧大學出版社, 1993.
- 黎遠方, <論陶淵明、“王孟”、范成大田園詩的異同>, 《桂林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第18卷第4期, 2004年12月.
- 王鳳霞, <從咏農詩到《四時田園雜興》—讀范成大詩歌一得>, 《中國古代文學研究》2008.9.
- 劉琦, <田園逸興與悲憫之音—范成大的田園詩及其對傳統田園詩的突破>, 《長春師範學院學報》第18卷第6期, 1999年11月.
- 鍾東, <范成大《四時田園雜興》四題>, 《廣州師院學報(社會科學版)》1996年第1期.
- 周原, <《四時田園雜興》與蘇州的歲時民俗>, 《社科縱橫》第19卷第4期, 2004年8月.
- 梁小炎, <論范成大的痛苦內容與解脫方式>, 《文教資料》2007.9.

- 鄢郴蘭, <論范成大田園詩的思想價值與審美意義>, 《湘南學院學報》 第27卷 第6期, 2006年12月.
- 존 킹 페어뱅크·밀 골드만 저, 김형중·신성곤 역, 《新中國史》, 까치, 2005.
- 梁鍾國, 《宋代士大夫社會研究》, 三知院, 1996.
- 김창환, 《도연명의 사상과 문학》, 을유문화사, 2009.
- 노은정, 《范成大的 田園詩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 黃永相, 《范成大的 <四時田園雜興>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 서용준, <《송시선주》가 논한 범성대 전원시의 의미에 대한 고찰>, 《중국문학이론》 제3집, 2003.
- 문관수, <南宋四大家의 전원시를 통해본 南宋의 농촌경제상>, 《中國學論叢》 제8집, 1999.

<Abstract>

‘Wollyeongga’ with Joy and Pain:
Analysis of Fan Chengda’s “Four pastoral”
through the Review of *Selected Poetry of Song Dynasty*

Rho, Eunjung

China’s pastoral poetry have been enriched since the Tang Dynasty, because of Tao Yuanming’s pastoral poetry that sang the joys of the rural life and the Yuan Zhen’s pastoral poetry that sang the pains of the ruel life. In the Song Dynasty, as the material in pastoral poetry became various and fresh due to the vogue for Neo-Confucianism, the contents became more abundant. The poet who packed the poems that became rich in that period and presented them as works, is Fan Chengda. According to Quan Zhongshu’s evaluation, Fan Chengda’s “Four pastoral” is the collectiveness of pastoral poetry, harmonizing the various contents of traditional pastoral poetry to show their characteristics.

While singing the beautiful scenery of the rural life and the various farming work in that rural area, Fan Chengda did not turn away from the voices of who living there. He included social poetry which sang all the pains of the rural life in the category of pastoral poetry, which sang the idyllic rural life and reclusion. This is the result of his efforts and practices, who have constantly cared for society and people and dreamed of a power to coexist together. Therefore, rural area of Fan Chengda became a rural areas that combines realistic rural areas, subjectively idealized rural areas, and objective rural areas.

Key words: Fan Chengda, pastoral poetry, Four pastoral, Quan Zhongshu, Selected Poetry of Song Dynast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2. 1.	2020. 2. 10.	2020. 2. 17.	2020. 2. 27.	2020. 3. 31.